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윤 지 원¹⁾

도 현 심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된 ‘아동가족연구단’ 연구에 참가한 유아기 자녀를 둔 155명의 어머니들이며, 조사자료는 질문지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SPSS PROCESS macro v2.16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기질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다. 첫째, 규칙성과 활동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각각 부정적 영향과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적응성, 규칙성 및 활동성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적응성 및 규칙성과 활동성은 양육스트레스에 각각 부정적 영향과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활동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동성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질 특성은 모두 순차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같은 양육 관련 변인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이러한 변인들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각 기질 특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기질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 본 논문은 2017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375).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simdoh@ewha.ac.kr)

I. 서 론

유아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정서적으로 미숙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서를 지속하는 시간 또한 매우 짧은 편이고 정서를 강렬하게 자주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표현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어린 유아일수록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는 외현적 행동으로 표현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도현심, 2012). 유아의 행동적 문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아동의 발달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유아기에 나타난 심각한 수준의 공격성, 품행문제, 주의산만·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며(Campbell & Ewing, 1990; 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이는 학령기의 또래 문제, 학업 문제, 부적응(남소현, 김영희, 2000; Emond, Ormel, Veenstra, & Oldehinkel, 2007)과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일탈과 비행, 범죄 등(Emond et al., 2007; Nagin & Tremblay, 2001)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신체 및 언어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이 유아들 가운데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2013)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 유아기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발견과 적절한 개입은 부정적 발달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발달단계의 초창기에 속하는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 관계와 그 발달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함께 제시해 온 것처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들 또한 대부분 이러한 틀을 기초로 크게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유아의 기질은 선행 관련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 온 개인적 특성에 속한다. 기질이란 유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하는 타고난 개인적 특성이며(Thomas & Chess, 1977),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개인차를 이끌어내는 경향성을 의미한다(Goldsmith, 1993; Goldsmith & Campos, 1982). 기질 특성과 관련하여, Windle과 Lerner(1986)는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제한되지 않은 보편적인 행동으로서 여러 연령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질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으며, 서주현과 이순형(2010)은 Windle과 Lerner가 제안한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적응성 기질(이하, 적응성), 규칙성 기질(이하, 규칙성), 활동성 기질(이하, 활동성)의 세 가지 기질 특성을 구분하였다. 적응성은 기분이 긍정적이고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으며 적응력이 높은 특성을, 규칙성은 수면 및 식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리듬이 규칙적인 특성을 뜻한다. 활동성은 활동 수준과 주의분산 정도가 높으며 주의집중이 낮은 속성을 의미한다. 보통 낮은 적응력 및 규칙성과 높은 활동성은 까다로운 기질 유형으로 범주화 되며,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Thomas & Chess, 1977). 예를 들면, 적응성과 규칙성이 낮고(신보영, 1999; Thomas & Chess, 1977), 활동수준이 높을수록(김연, 황혜정, 2008; 장영숙, 조정애, 2000; Mathiesen & Sanson, 2000)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기질 특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다소 비일관되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적응성은 보통 순한 기질 유형으로 분류되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천희영, 1997; Thomas & Chess, 1977), 몇몇 연구들에서는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산만하고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기도 한다(김선희, 2009; 김연, 황혜정, 2008; 조혜진, 이기숙, 2004). 규칙성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 가운데 주의산만이나 비행과 달리 공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김연, 황혜정, 2008),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였다(김선희, 2009). 활동성은 특히 비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기질 특성 중 하나로, 활동성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김연, 황혜정, 2008; 장영숙, 조정애, 2000)을 나타낸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는 반면, 활동적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고(박혜원, 2012) 사교적 행동(Coleman & Karraker, 2003) 및 대인관계 형성 기술이 높아(정영선, 2004) 긍정적 특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일관된 결과는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또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또한, 기질은 평가자의 성격 및 배경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Bates,

1987)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질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각 기질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 외에도 유아가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유아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들을 들 수 있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는 유아가 처음 접하는 환경이다. 특히, 유아가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주변 인물을 모방하며 학습하고 성장하는 생후 초기 6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아동발달과 관련된 수많은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공영숙, 임지영, 2012; Campbell, 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공격적이고 산만한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이찬숙, 현은자, 2008; 장영애, 이영자, 2012). 또한,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일수록 유아는 공격성(박미진, 강지현, 2012; 이찬숙, 현은자, 2008; Pet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주의집중문제(김숙령, 이선희, 2006; 박미진, 강지현, 2012)와 같은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할 때, 예방적 측면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의 문제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육 관련 변인 가운데,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도 양육스트레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 변인으로 최근 들어 취업모 증가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함께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피로, 곤란 정도나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고성혜, 1994),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 양육자로 알려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호소한다.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동적 문제를 예측하는 위험요소로 알려진다(Barry, Dunlap, Cotten, Lockman, & Wells, 2005; Morgan, Robinson, & Aldridge, 2002).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유아는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양자 간의 직접적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문 편이나, 전체적인 모형에서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몇몇 연구들은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미정, 2001;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앞서 유아의 문제행동의 선행 요인으로서 살펴본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과 환경적 특성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는 또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요인 과정 모델(a process model of determinants of parenting)과 Abidin(1992)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모델(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model)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Belsky(1984)는 부모의

특성, 자녀의 특성,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발달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질에서의 개인차는 유아가 주변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Windle & Lerner, 1986), 적응성, 규칙성 및 활동성과 같은 유아의 기질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규칙적이며 활동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김민정 등, 2013; 임희수, 박성연, 1994). 또한, 어머니들은 유아가 낮은 적응성 및 규칙성 등 까다로운 기질을 나타낼수록 덜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거나(Lerner, 1993), 이와 반대로 높은 수준의 반응적 행동을 보이고(문혁준, 2000)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는(Crockenberg, 1986) 등 동일한 기질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중 하나로 본 Belsky와는 다르게, Abidin(1992)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적 발달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행동적, 발달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특성 자체 보다는 부모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자원들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결정

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Abidin에 따르면, 유아의 기질은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세 변인 간의 이러한 관계는 걸음마기 아동의 적응성과 규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었고, 낮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덜 초래한 연구결과(조운영, 2014)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는 유아가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사회성이 부족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그 결과로 권위주의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어머니 자신의 성격과 우울의 정도와 같은 개인 특성과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환경 특성 등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아동 특성이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박해미, 1994; Abidin, 1992). 기질적으로 과격하게 반응하고 진정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부모가 아동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며(Goldsmith et al., 1987),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Ostberg & Hagekull, 2000; Thomas & Chess, 1977). 또한, 예민하고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데 부정적이며 보체는 아동일수록(정영민, 유연옥, 2011), 지나치게 활동적일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평가하였다(남혜순, 2003; 전미순, 이영애, 2009). Belsky와 Abidin의 주장을 종합해 보건대,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또한 서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는 부모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Luster & Okagaki, 2006).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Abidin(1992)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모델 역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 있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권위적이고 가혹한 부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박성연 등, 1996; 이인화, 박지은, 최성열, 2010; Deater-Deckard & Scarr, 1996), 양육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쉽다(McBride & Mills, 1993). 몇몇 국내 연구들에서도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성연 등, 1996; 이영미, 2009; 이인화 등, 2010).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통제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신지연, 2011).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박성연 등, 1996; 이영미, 2009; 이인화 등, 2010).

선행 연구들에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 및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등 각 변인 간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모두 유아의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 관련 변인들을 포함하여 직·간접 경로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다만,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각각의 매개적 역할을 영아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가 보고되어, 양육스트레스는 기질과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김숙령, 최항준, 정경화, 이윤이, 2012). 양육행동도 기질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까다로운 기질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박혜원, 2012; 문상희, 2011; Prinzie, Van Der Sluis, De Haan, & Deković, 2010). 또한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져,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낮추고(최효식 등, 2016) 부정적 양육행동을 초래하여(Deater-Deckard & Scarr, 1996) 결과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기질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내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관련 변인들 중 일부 변인만을 포함하거나, 아동 변인과 부모 변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변인들 간 상대적 영향력이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여러 변인들 간 경로를 살펴본 몇몇 선행 연구들조차 매개변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일관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아동 변인(기질)과 어머니 변인(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유아의 각 기질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적응성, 규칙성 및 활동성을 포함한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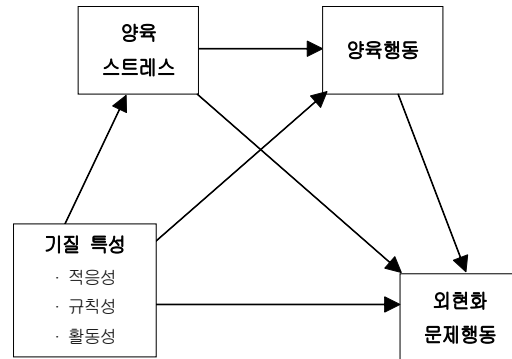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트레스 및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Social Science Korea)으로 수행한 아동가족연구단 연구의 일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만 3-4세 유아를 자녀로 둔 155명의 어머니들이다. 유아기는 여러 발달영역에 걸쳐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후 발달단계에 비해 적응에 취약하며, 여전히 인지 및 정서 발달이 미성숙하여 자기중심적이고 조망수용 능력이 낮아 갈등 유발 상황에서 분노를 쉽게 느낄 수 있다(Marion, 1994). 이 시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이후 발달단계에서도 지속되기 쉽다는 연구결과들(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Rubin, Burgess, Dwyer, & Hastings, 2003; Rose, Rose, & Feldman, 1989)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양육 관련 요인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연구결과(이순자, 유수옥, 2012)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를 유아기로 선정하였다. 유아의 평균 월령은 46.87개월($SD = 4.64$)이었으며, 성별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83명(53.5%)과 72명(46.5%)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모두 35-39세가 각각 72명(%)과 73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04세($SD = 4.09$),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89세($SD = 3.55$)이었다. 부모의 학력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각각 76명(49.0%)과 65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유아의 기질 특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네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Likert)식으로 평가되며,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유아의 기질 특성

유아의 기질 척도는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를 서주현과 이순형(2010)이 수정한 것으로, ‘적응성(9문항), ‘규칙성(9문항), ‘활동성(12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기질의 대표적 특성을 의미한다. 각 기질 특성의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적응성은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 ‘새로운 상황을 좋아한다.’ 등을 들 수 있고, 규칙성은 ‘매일 밤 거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잠을 잔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배가 고프다.’ 등이 포함되며, 활동성은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닌다.’, ‘쉬지 않고 움직인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기질 특성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적응성 .79, 규칙성 .81, 활동성 .68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의 ‘부모스트레스 척도-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김민정(2008)이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요인별 문항의 예로, 부모의 고통 요인은 ‘나는 종종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아이를 가진 이후로 새롭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다.’ 등이 있고,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은 ‘우리 아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덜 웃는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아이는 나의 노력에 대해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은 ‘우리 아이는 대체로 아침에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매우 시무룩해하고 쉽게 속상해한다고 느낀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의 정도,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세 하위요인들을 합산하여 단일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고($r = .23 \sim .48, p < .01$),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70보다 높은 .92로 매우 적절한 점(Kline & Santor, 1999)에 근거한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Schaefer(1965)의 ‘양육행동에 대한 세 가지 요인 모형 척도(Three-Factor Model of Parental Behavior)’를 박영애(1995)가 수정·번안한 것을 김문정(2003)이 재수정한 것이다. 박영애(1995)의 척도는 본래 ‘온정·수용(40문항)’, ‘거부·제재(28문항)’, ‘허용·방임(12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총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김문정(2003)이 문항수를 줄이기 위하여 하위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10문항씩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총 3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온정·수용 요인은 ‘아이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 낸다.’, ‘아이가 한 일이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해 준다.’ 등이 있고, 거부·제재 요인은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아이에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등이 있으며, 허용·방임 요인은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버릴 때가 많다.’ 등이 있다. 허용·방임은 온정·수용, 거부·제재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각 양육행동 하위요인에 따른 양상보다는 양육행동을 매개변

인으로 한 연구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하위요인들을 합산하여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동시에,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온정·수용 요인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두 가지 하위요인의 방향성을 일치시켰다. 역채점한 온정·수용과 거부·제재 간 상관관계도 유의하였으며($r = .55, p < .01$), 전체 문항의 신뢰도도 .86으로 적절하였다(Kline & Santor, 1999).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일부로, 만 3세 유아부터 만 17세 청소년까지 측정 가능한 표준화된 조사도구이다(조선미, 박혜연,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 2006).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비행(15문항)과 과잉행동(19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총 34문항)으로 구성된다. 비행은 공격성 및 적대감, 불복종 및 반항,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품행 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을 못살게 군다.’, ‘거짓말을 곧잘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과잉행동 요인은 충동성, 부주의 등 과다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나 행동들을 측정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실수를 한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비행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개별적 양상보다는 연구변인들이 전반적인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두 가지 하위요인을 합산하여 단일요인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고($r = .67, p < .01$), 전체 문항의 신뢰

도가 .80로 적절한 점(Kline & Santor, 1999)에 근거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SK 아동가족연구단에 의해 조사된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영유아보육/교육기관을 통해 본 연구에 참가하고자 동의한 어머니들을 모집하였으며, 어머니들이 본교에 위치한 실험실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v2.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인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의 정규분포성 또한 검정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PROCESS macro로 분석하였다. 간접 경로의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PROCESS에서는 모든 수치가 비표준화계수(B)로 산출되며, 이를 보고하는 것이 권장되므로(Hayes, 2009)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비표준화계수로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유아의 기질 특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세 가지 기질 특성 간과 적응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및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 참조).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질 특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기질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적응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적응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앞서 표 1에서 확인하였듯이, 적응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적응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 경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첫째, 적응성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적응성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B = -.38, p < .001$),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연구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155$)

변인	1	2	3	4	5	6
1. 적응성	-					
2. 규칙성	.06	-				
3. 활동성	.15	-.15	-			
4. 양육스트레스	-.40**	-.24**	.21**	-		
5. 양육행동	-.32**	-.16	.27**	.66**	-	
6. 외현화 문제행동	-.13	-.29**	.48**	.53**	.51**	-
<i>M</i>	2.96	2.87	2.71	2.05	1.91	54.33
<i>SD</i>	0.37	0.39	0.31	0.35	0.32	9.78

주. 양육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를 지님.

** $p < .01$.

표 2. 적응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N = 155$)

준거변인	예측변인	<i>B</i>	<i>SE</i>	<i>t</i>	R^2	$F(df_1, df_2)$
외현화 문제행동	적응성	-3.40	2.15	-1.58	.02	2.51(1, 153)
양육스트레스	적응성	-.38	.07	-5.43***	.16	29.53***(1, 153)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59	.06	9.46***	.43	58.34***(2, 152)
	적응성	-.06	.06	-.97		
외현화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10.85	2.56	4.25***	.34	25.95***(3, 151)
	양육행동	8.89	2.65	3.36**		
	적응성	3.27	1.94	1.69		

** $p < .01$. *** $p < .001$.

양육스트레스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10.85$, $p < .001$). 즉,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도 낮았다. 적응성이 양육스트레스를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 = -4.16$,

95% CI = -7.13, -1.98; 표 3 참조). 둘째, 적응성이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적응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응성이 순차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유의하였다.

표 3.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N = 155)

준거변인	경로	부트스트랩 추정치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B)	표준오차 (Boot SE)	하한값 (BootLLCI)	상한값 (BootULCI)
Y	$X_A \rightarrow M1 \rightarrow Y$	-4.16	1.29	-7.13	-1.98
	$X_A \rightarrow M2 \rightarrow Y$	-.51	.62	-2.00	.54
	$X_A \rightarrow M1 \rightarrow M2 \rightarrow Y$	-2.00	.78	-4.00	-.78

주 1. X_A = 적응성, M1 = 양육스트레스, M2 = 양육행동, Y = 외현화 문제행동

주 2.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적응성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B = -.38, p < .001$),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B = .59, p < .001$),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B = 8.89, p < .01$). 즉,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하였으며, 이는 낮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었다. 적응성이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들을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2.00, 95\% CI = -4.00, -.78$; 표 3 참조).

2. 규칙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규칙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접 경로와 관련하여, 규칙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쳐 ($B = -.723, p < .001$) 유아는 기질이

규칙적일수록 낮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규칙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첫째, 규칙성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규칙성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B = -.21, p < .01$), 양육스트레스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B = 8.54, p < .001$). 즉, 기질이 규칙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도 낮았다. 이러한 경로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82, 95\% CI = -4.04, -.57$; 표 5 참조). 둘째, 규칙성이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규칙성이 순차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유의하였다. 규칙성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B = -.21, p < .01$),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B = .61, p < .001$),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표 4. 규칙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N = 15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R^2	$F(df_1, df_2)$
외현화 문제행동	규칙성	-7.23	1.94	-3.72***	.29	13.87*** (1, 153)
양육스트레스	규칙성	-.21	.07	-3.03**	.06	9.20** (1, 153)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61	.06	10.42***	.43	57.52*** (2, 152)
	규칙성	.00	.05	.01		
외현화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8.54	2.47	3.45***	.36	27.76*** (3, 151)
	양육행동	8.55	2.61	3.28**		
	규칙성	-4.31	1.69	-2.55*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N = 155$)

준거변인	경로	부트스트랩 추정치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B)	표준오차 (Boot SE)	하한값 (BootLLCI)	상한값 (BootULCI)
Y	$X_B \rightarrow M1 \rightarrow Y$	-1.82	.86	-4.04	-.57
	$X_B \rightarrow M2 \rightarrow Y$	.00	.51	-1.06	1.01
	$X_B \rightarrow M1 \rightarrow M2 \rightarrow Y$	-1.11	.55	-2.64	-.32

주 1. X_B = 규칙성, $M1$ = 양육스트레스, $M2$ = 양육행동, Y = 외현화 문제행동

주 2.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영향을 미쳤다($B = 8.55$, $p < .01$). 즉, 기질이 규칙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낮았고,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들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하였고, 이는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연결되었다. 규칙성이 순차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1.11$, 95% CI = -2.64, -.32; 표 5 참조). 표 4에서와 같이, 규칙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가지 양육 관련 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규칙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B = -7.23$, $p < .001 \rightarrow B = -4.31$, $p < .05$).

3.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표

표 6.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N = 15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R^2	$F(df_1, df_2)$
외현화 문제행동	활동성	15.00	2.24	6.71***	.23	45.06*** (1, 153)
양육스트레스	활동성	.24	.09	2.71**	.05	7.35** (1, 153)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58	.06	10.17***	.45	62.04*** (2, 152)
	활동성	.15	.06	2.27*		
외현화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9.09	2.26	4.01***	.44	39.95*** (3, 151)
	양육행동	6.05	2.47	2.45*		
	활동성	11.09	1.99	5.58***		

* $p < .05$. ** $p < .01$. *** $p < .001$.

6, 그림 2와 같다. 직접 경로의 경우, 활동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B = 15.00$, $p < .001$) 유아는 활동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간접 경로의 경우, 첫째, 활동성은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동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24$, $p < .01$), 양육스트레스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9.09$, $p < .001$). 즉,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

동의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경로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 = 2.18$, 95% CI = .67, 4.57; 표 7 참조). 둘째, 활동성이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활동성은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15$, $p < .05$),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6.05$, $p < .05$). 즉, 기질의 활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았고, 어머니들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 활동성이 어

표 7.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N = 155$)

준거변인	경로	부트스트랩 추정치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B)	표준오차 (Boot SE)	하한값 (BootLLCI)	상한값 (BootULCI)
Y	$X_C \rightarrow M1 \rightarrow Y$	2.18	.98	.67	4.57
	$X_C \rightarrow M2 \rightarrow Y$	.88	.57	.10	2.43
	$X_C \rightarrow M1 \rightarrow M2 \rightarrow Y$	.85	.47	.17	2.09

주 1. X_C = 활동성, M1 = 양육스트레스, M2 = 양육행동, Y = 외현화 문제행동

주 2.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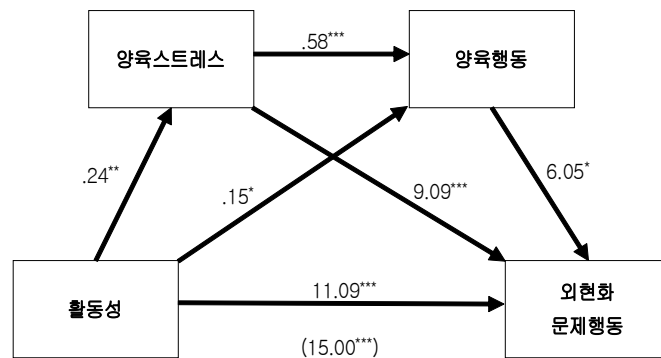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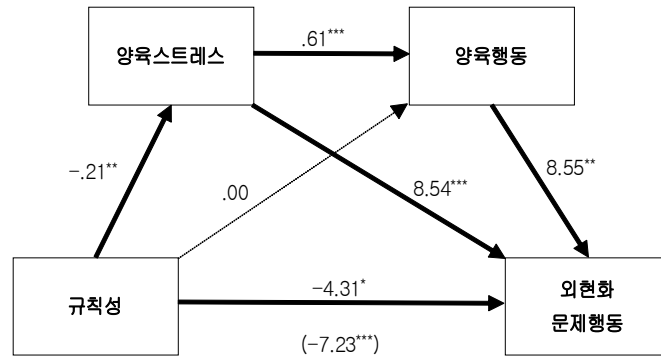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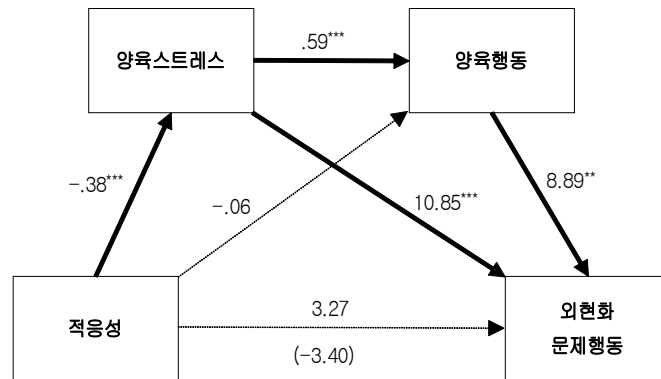


그림 2.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 1.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계수임

주 2. 괄호 안은 단순회귀분석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머니의 양육행동을 거쳐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 = .88$, 95% CI = .10, 2.43; 표 7 참조). 마지막으로, 활동성은 순차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동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24$, $p < .01$),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58$, $p < .001$),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6.05$, $p < .05$). 즉, 유아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었다. 활동성이 양육 관련 변인들을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 = .85$, 95% CI = .17, 2.09; 표 7 참조). 표 6에서와 같이, 활동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가지 양육 관련 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여,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은 활동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하였다($B = 15.00$, $p < .001 \rightarrow B = 11.09$,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 특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

펴보았다. 기질의 특성별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직접 경로와 세 가지 간접 경로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기질 특성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규칙성과 활동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높은 활동성, 낮은 리듬성 등이 문제행동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Thomas & Chess, 1977)와 일치하며, 낮은 규칙성을 가진 유아일수록 주의산만과 과잉행동을 많이 보였고(박미진, 강지현, 2012), 높은 활동성을 가진 유아일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김연, 황혜정, 2008; 이찬숙, 현은자, 2008)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규칙성이 낮은 유아는 신체적 리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고, 활동성이 높은 유아 역시 에너지가 넘쳐 충동적이거나 산만하고 과도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 또한, 유아는 신체 움직임이 많을수록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아 그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미성숙한 방법으로 대처할 경우 문제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응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적응력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거나(신보영, 1999; Thomas & Chess, 1977)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선희, 2009; 김연, 황혜정, 2008; 조혜진, 이기숙, 2004)과는 불일치한다. 반면, 적응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유영신, 유연옥, 2015)와는 일치한다. 이처럼

비밀관된 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적응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직접적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뒤에서 서술할 간접 경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 외에도, 몇몇 관련 연구결과들(김민아, 이재신, 2004; 조미영, 정미경, 김영희, 2010)에 근거한다. 적응성과 관련한 본 연구결과는, 기질이라는 개인적 특성만으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부모-자녀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며(Cameron, 1978), 기질은 환경적 영향이 있을 때에만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Thomas, Chess, & Birch, 1969)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순한 기질 특성보다 문제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는 점(최연희, 2000; Cameron, 1978; Nelson, Martin, Hodge, Havill, & Kamphaus, 1999)을 본 연구결과와 연결시켜 보건대, 순한 기질에 속하는 적응성은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세 가지 기질 특성 모두 유의하였다. 적응성과 규칙성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춰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켰으며, 활동성은 양육스트레스를 높여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행동 간의 관계(김숙령 등, 2012)와 유아의 기질과 조절능력 간의 관계(최향준, 2010)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이는 유아의 행동이 유아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가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유아가 활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부적응적이고(이수미, 민하영, 2007; 조용신, 정영숙, 2000) 불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질수록(남혜순, 2003; 이수미, 민하영, 20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과 유아의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남혜순, 2003; 신지연, 2011)과 일치한다. 유아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보이는 경우, 자녀의 행동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면서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 및 효능감과 더불어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것이다. 반면, 유아가 지나치게 높은 활동 수준을 가질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폭될 수 있다. 주요 생활사건에 의한 스트레스보다는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개인의 적응과 안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Lazarus & Folkman, 1984), 매일 상호작용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유아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Anthony et al., 2005; Crnic & Greenberg, 1990)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산만함 및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박미정, 2001; 최항준, 2010; 최효식 등, 2016)을 지지한다. 어머니가 양육 시 우울과 불안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유아 역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Anthony et al., 2005) 정서조절이 미숙한 유아에게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앞서 서술한 유아의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시켜 볼 때,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그들 자신의 안녕감은 물론 나아가 유아의 부정적 발달결과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셋째,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 경로는 활동성의 경우에만 발견되어 양육행동은 활동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는 활동성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혜원, 2012)와 일치하며, 기질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밝힌 연구결과들(문상희, 2011; 박혜원, 2012; Prinzie et al., 2010)과 유아의 활동성과 순응/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신나나 등, 2014), 자극추구와 같은 까다로운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이정숙, 문보경, 2010) 등과 유사한 맥

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활동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일수록 어머니는 유아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다고 느껴 온정적인 태도보다는 유아의 신체적 움직임을 통제하거나 개입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육행동은 불순응, 반항 및 적대적인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경로는 활동성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거부·적대적 양육(임희수, 박성연, 1994; 하지영, 박성연, 2005)과 통제적 양육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허태희, 2008)과 일치하며, 적응성이나 규칙성은 통제적 양육과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김나희 등, 2012; 김연옥, 김영희, 2002; 허태희, 2008)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어머니들은 유아의 활동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이를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기 쉬우며, 안전에 대한 우려로 온순한 기질의 유아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개입 및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기질 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차이가 발견된 점은 본 연구에서 가정 한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확인케 하는 것으로 흥미롭다. 활동성과 달리 적응성과 규칙성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적응성과 규칙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즉 신체적 움직임을 포함하는 활동성이 어머니로 하여금 아이를 제재하는 등과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본 연구에서 긍정적 및 부정

적 양육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대신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점과도 연결된다. 이 외에도,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기질과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한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작용한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요인 과정 모델과 Abidin(1992)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모델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동의 특성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발견된 경로에 관련하여, 이는 부모가 거부·제재적이며 강압적으로 양육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김혜정, 2014; 이찬숙, 현은자, 2008)과 일치한다. 유아기는 양육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로, 유아의 행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유아는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부모를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모방하기 쉽다. 또한, 부모로부터 애정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유아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도현심, 2012), 이러한 불만이 문제행동으로 발현되기 쉬울 것이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Coleman & Karraker, 2003)에 근거할 때,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기술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질이 순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모든 기질 특성의 경우에 유의하였다. 즉, 유아의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 낮은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양육행동을 경험할수록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나타냈다. 반면, 유아의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이것은 다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야기하였고, 이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네 가지 연구변인들을 동시에 포함한 선행 연구가 매우 드물어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나,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한 연구결과(신지연, 2011)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힘들게 느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이 지각하기 쉬우므로(박성연 등, 1996),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최효식 등, 2016; Mackler et al., 2015; Prinzie et al., 2010)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로 유발되는 비온정적, 거부적, 강압적 양육행동의 증가와 부적절한 보살핌과 같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어머니-유아 상호작

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각 경로와 관련하여,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 수준도 높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민하영, 이영미, 2010; 신지연, 2011)과 일치한다.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를 양육행동의 예측요인으로 여겨,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적응성, 규칙성 및 활동성 등과 같은 기질 특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다른 양상을 보여 각 기질 특성의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 기질 특성은 모두 순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의 커다란 영향력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세 가지 기질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 기질 특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기초로 그에 적합한 양육방법을 이해시키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기질이 문제행동의 원인임과 동시에 유아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유아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면에서, 유아의 기질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춰 긍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되어, 어머니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더불어 관찰법과 면접법 등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설계는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선행 요인들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되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므로, 후속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

력을 모-자녀관계와 더불어 부-자녀관계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유아 및 어머니 관련 변인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거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특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환경적 변인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발달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Timmermans, Van Lier, & Koot, 2008), 본 연구는 유아에게 가장 근접하며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환경으로서의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이 어떤 경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적 개입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춰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발달과 유아 및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공영숙,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6.
- 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51-163.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 이재신 (2004). 어머니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45-166.
- 김민정 (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2), 101-119.
- 김선희 (2009).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관계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9(5), 203-224.
- 김숙령, 이선희 (2006). 가정환경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성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3(1), 1-13.
- 김숙령, 최항준, 정경화, 이윤이 (2012). 영아기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 김연, 황혜정 (2008).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
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연구, 28(3), 23-49.
- 김연옥, 김영희 (200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특성이 유아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5, 123-
140.
-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2013). 학교폭력 예방
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서
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혜정 (2014). 만 4-5세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
예측 변인 연구: 가족특성, 유아기질, 어머
니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
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 성
별중심. 생활과학연구논총, 3, 17-28.
- 남혜순 (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
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유아교
육, 12(2), 121-135.
- 도현심 (2012). 첫 부모역할 책. 서울: 지식채
널.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문상희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
질 및 문제행동의 경로모형분석. 동아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
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2.
- 민하영, 이영미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27(6), 203-213.
- 박미정 (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
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강지현 (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31-352.
- 박성연, 진춘애,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
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
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지, 34(4), 203-215.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49-566.
- 박해미 (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
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매
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서주현, 이순형 (2010). 유아의 다중지능과 관
련된 생물생태학적 변인 연구: 유아의 기
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조화적합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29-

- 242.
- 신나나, 도현심, 김민정, 송승민, 김수지, 윤기봉, 두정일 (2014). 유아의 기질과 순응/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통제 전략의 매개적 효과. *아동학회지*, 35(6), 135-152.
- 신보영 (1999).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8(2), 99-111.
- 신지연 (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 유영신, 유연옥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 부모교육연구*, 7(3), 123-140.
- 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안전성: 1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617-627.
- 이수미, 민하영 (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 이순자, 유수옥 (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 - 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논집*, 16(6), 127-156.
- 이영미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거부적 양육행동에 따른 남녀 유아의 자기조절. *가족과 문화*, 21(4), 41-61.
-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19(4), 81-91.
-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0.
- 임희수, 박성연 (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2), 153-168.
- 장영숙, 조정애 (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 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장영애, 이영자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0(3), 357-373.
- 전미순, 이영애 (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97-116.
- 정영민, 유연옥 (2011). 만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탄력성과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 30(2), 63-83.
- 정영선 (2004).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 정미경, 김영희 (2010).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정서조절,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211-237.

- 조선미, 박혜연,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 (2006).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25-848.
- 조용신, 정영숙 (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학회지*, 9(3), 271-281.
- 조윤영 (2014).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 요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 이기숙 (2004).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4), 263-284.
- 천희영 (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211.
- 최연희 (2000).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향준 (2010).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련성 종단연구. *육아지원연구*, 11(2), 59-84.
- 하지영, 박성연 (200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55-74.
- 허태희 (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Barry, T. D., Dunlap, S. T., Cotten, S. J., Lochman, J. E., & Wells, K. C. (2005). The influence of maternal stress and distress on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4(3), 265-273.
- Bates, J. E. (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 (Ed.),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1101-1149).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Cameron, J. R. (1978). Parental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2. Initial temperament, parental attitudes, and the

- incidence and form of behavior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1), 140-147.
-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Clinical development issues*. New York/London: Guilford Press.
- Campbell, S. B., & Ewing, L. J. (1990). Follow-up of hard-to-manage preschoolers: Adjustment at age 9 and predictors of continu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6), 871-889.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rockenberg, S. B.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 giving?.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31), 53-73.
- Deater-Deck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1), 45-59.
- Emond, A., Ormel, J., Veenstra, R., & Oldehinkel, A. J. (2007). Preschool behavioral and social-cognitive problems as predictors of (pre) adolescent disruptive behavio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8(3), 221-236.
- Goldsmith, H. H. (1993). *Temperament: Variability in developing emotion systems*.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 353-364). New York: Guilford Press.
- Goldsmith, H., Buss, A., Plomin, R., Rothbart, M., Thomas, A., Chess, S., & McCall, R.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2), 505-529.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N. Emde & R. J. Harmon (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pp. 161-193). Boston, MA: Springer.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Kline, R. B., & Santor, D. A. (1999). Principles &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Canadian Psychology*, 40(4), 381-38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W. D. Gentry (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pp. 282-325). New York: Guilford Press.
- Lerner, J. V. (1993). The influence of child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n parent behavi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01-12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uster, T., & Okagaki, L. (2006).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London, UK: Routledge.

- Mackler, J. S., Kelleher, R. T., Shanahan, L., Calkins, S. D., Keane, S. P., & O'Brien, M. (2015). Parenting stress, parental reactions, and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s 4 to 1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2), 388-406.
- Marion, M. (1994).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responsible anger management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97(1), 155-163.
- Mathiesen, K. S., & Sanson, A. (2000). Dimension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from 18 to 30 month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15-31.
- McBride, B. A., & Mills, G. (1993). A comparison of mother and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age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457-477.
- Morgan, J., Robinson, D., & Aldridge, J. (2002).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child behaviour. *Child & Family Social Work*, 7(3), 219-225.
-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istinct but related behaviors: A group-based method. *Psychological Methods*, 6(1), 18-34.
- Nelson, B., Martin, R. P., Hodge, S., Havill, V., & Kamphaus, R. (1999). Modeling the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from preschool tempera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4), 687-700.
- O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Pettit, G. S., Harrist, A. W., Bates, J. E., & Dodge, K. A. (1991). Family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3), 383-402.
- Prinz, P., Van Der Sluis, C. M., De Haan, A. D., & Deković, M. (2010).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ing on the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child personality an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78(4), 1301-1323.
- Rose, S. L., Rose, S. A., & Feldman, J. F. (1989). Stability of behavior problems in very you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5-19.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mith, C. L., Calkins, S. D., Keane, S. P., Anastopoulos, A. D., & Shelton, T. L. (2004). Predicting stability and change in toddler behavior problems: Contributions of maternal behavior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29-42.

- Timmermans, M., Van Lier, P. A., & Koot, H. M. (2008). Which forms of child/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s account for late adolescent risky sexual behavior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86-394.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9).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29.
- 1 차원고접수 : 2018.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8. 05. 19.
최종게재결정 : 2018. 05. 23.

The Effects of Temperamental Dimension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 Preschoolers

Yoon, Jiwon

Doh, Hyun-Sim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emperamental dimensions such as adaptability, regularity, and activity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 total of 155 mothers of 3- to 4-year-old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at were drawn from the 2010 Child and Family Study, a project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by path analyses using SPSS PROCESS macro v2.16.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ularity and activity had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respectively. Second, adaptability and regularity had negative effects but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rough parenting stress. Third,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rough parenting behavior. Finally, adaptability and regularity had negative effects but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sequentially through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hild rearing-related variables such as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and differential influences of each temperamental dimension on those parenting variable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Keywords: temperamental dimens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